

문학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듣는 소리*

투이 즈영(Tui Jueong)**

차 례

1. 들어가며
2. 사랑과 증오
3. 인간의 생존에 대한 숙명과 의미
4. 마무리

[한국어 초록]

이 글은 베트남의 문학 전통과 민족적 특징을 서술한 논문이다. 베트남은 고대에는 천년 동안 중국, 몽골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현대에 와서는 프랑스와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큰 고난을 당해 왔다. 베트남 민족은 운명처럼 자주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맞이 했지만, 오히려 활기차고 창조적인 본성을 기반으로 베트남 특유의 민족정신과 전통을 단련시켜 왔다.

이러한 전통은 몽골군의 침략을 2번이나 물리친 후 쩌년 퐁(Trần Nhân

* 이 논문은 2018년 10월 4일 The-K 경주호텔(경주시)에서 열린 베트남작가협회와 동리목월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한 “2018 한·베 문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이다.

** Thùy Dương : 소설가, 본명은 Nguyễn Thị Dương, duong.tctg@gmail.com

Tông) 왕이 쓴 시와 15세기 응 쩌이(Nguyễn Trãi)가 지은 「독립선언문」 등에는 전쟁과 민족 자주독립에 대한 감흥이 잘 드러나 있고, 1975년 4월 30일에 이룩된 북남베트남의 통일 전후에 나타난 문학작품에도 베트남의 민족적 전통과 그 근원적 가치인, 인문, 책임, 자유의 정신이 잘 갈무리되어 있다. 베트남 문학은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쌓아온 민족적, 전통적인 정화는 전인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문화가 가진 이런 실질적 가치는 베트남 민족과 유리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러한 베트남 문학이 가진 보편적인 전통과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주제어: 베트남, 민족, 전쟁, 문학, 인류, 애국심

1. 들어가며

“민족 전통과 베트남문학의 특징”에 대한 주제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현기증이 났다. 이것은 너무도 큰 주제이기 때문이다.

문학연구가에게도 버거운 주제를 소설가가 짧은 시간 동안 A4 다섯 장에 담아내기에는 힘에 부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주제가 소설가의 의식 어느 한구석에 닿아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느꼈다. 마치 피와 살처럼, 민족의 정수처럼 태어나서, 문장이 흘러갈 길을 만든다. 바로 그곳에 민족, 국가, 존귀하고 영예로운 신령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모든 민족은 개별적인 색채, 그리고 개별적인 운명과 사명을 갖고 있다. 마치 사람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개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민족은 종교적 믿음의 출발점과도 같고, 민족은 스스로 신성시된다. 그리고 “끝없이 복잡한 음악 속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나타난 민족들이 친구가 되어, 하나의 통일체 속에서 서로의 음을 변주하고 화음을 이룬다.”고 한다면 베트남민족은 아주 비범한 운명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구가 작고 가난하지만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적과 맞서야 했다.

천년동안 중국 침략군에 맞서 끊임없이 싸웠고,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 제국주의국가들과 전쟁을 치렀다. 그 고통스러운 길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저 운명이라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지만 바로 그 길에서 활기차고 창조적인 본성을 지닌 민족의 정신과 전통이 더욱 더 단련되는 보답을 받았다.

그를 통해 핵심적 가치를 지키고 민족의 오랜 존속을 쟁취했다. 그리고 나는 베트남문학이 그 고유한 민감성으로 민족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바로 선조의 작품을 통해 민족을 아주 깊이 있게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2. 사랑과 증오

나는 몽고군을 두 번 물리친 후 쩌년 퐁(Trần Nhân Tông) 왕이 쓴 시를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

돌로 만든 말이 지치도록 사직을 여러 번 뛰었으니

산하는 천대를 이어 황금처럼 견고하다

전 년 똥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적을 물리친 왕이다. 당시 적군의 세력은 마치 독방을 무너뜨린 홍수와도 같았다. 그들의 말발굽은 유럽까지 짓밟아 놓았다. 그럼에도 세 번에 걸쳐 쳐들어 왔을 때 전왕조의 군대 앞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승리를 거둔 후 군신들은 다함께 왕조의 묘 앞에서 승리의식을 거행했다. 왕은 진흙투성이가 된 돌말에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시를 적어 넣어 자손만대에 남기도록 했다. 단지 두 구절뿐이지만, 민족의 커다란 힘과 승리의 자부심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고, 더 크게는 자존에 대한 갈망 그리고 동시에 국경을 완전하게 지키고, 베트남 민족의 오랜 존속을 강조한다. 베트남 민족의 전통 중 하나는 애국심이다. 그것은 마치 자연적 속성과 같다. 마치 태어날 때 생겨나서 초가집 대나무 울타리에서부터 시골길 물소 발자국에 이르기까지, 산과 강에 머무는 시선까지,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죽음을 각오할 수 있을 정도로 조국을 사랑한다.

바로 그런 사랑과 증오의 거대한 불꽃은 기적을 만들고 5대륙에 그 전공의 성과가 울려 퍼지게 한다. 본능적으로 우리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인식하고,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민족전통과 정신을 인식하며,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된 고통과 악전고투의 전쟁을 거쳐 오면서 민족의 힘을 발휘했다. 만약 “민족의 시대정신”이 없었다면 문학이 역사에 무엇을 새겼을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15세기 응웬 짜이(Nguyễn Trãi)가 지은 「평오대고」라는 독립선언문을 알고 있다면 베트남 사람들이 대대로 민족에 대한 자의식이 아주 높다는 것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비와 정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으니

군대가 나아가 적을 토벌하고 폭력의 근원을 제거한다

대월국은 예로부터 이어져왔노라

본래 그 이름 문헌에도 오래 되었노라

산하는 이미 나누어져 있으니

중국과 베트남의 풍속은 역시 다를 뿐이다

우리 문학사의 흐름에서 전쟁이라는 주제와 민족 자주 독립의 감흥은 전혀 낯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내가 열 살이 되었을 때 읽은 전쟁 관련 주제의 작품들도 하나도 낯설지 않았다. 레 루(Lê Lưu)의 「숲을 열다」, 레 민 쿠에(Lê Minh Khuê)의 「머나먼 별들」, 응웬 민 쩌우(Nguyễn Minh Châu)의 「군인의 발자국」 그리고 팜 띠엔 주엣(Phạm Tiến Duật)의 「아름다운 계절에 전선으로 가는 길, 동쪽 증선산맥이 기억하는 서쪽 증선산맥」 등을 심취해서 읽었다.

나중에 글쓰기에 발을 들여놓은 후 고귀하게 여겼던 작가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분들에게 말했다. 만약 1975년 4월 30일이 없었다면 조국의 신령스런 부름을 따라 내가 어찌 증선산맥에 오를 수 있었겠냐고.

모두 당신들께서 전해 주신 불꽃 덕분이라고. 작가의 사명이란 민족전통을 위해 불꽃을 지키고 그 불꽃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비록 후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나의 단편과 장편소설에서 전쟁 트라우마는 여전히 여기저기를 배회한다. 전쟁이 남긴 기억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기 때문이다. “밤에 남자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 여자들은 몽유병에 걸려서 하얀 유령처럼 온 들판을 나풀나풀 걸어 다니고 심지어 물소에서 떨어져 죽은 아이들조차 군인이 되는 꿈을 얘기하기 위해 들판으로 돌아온다.” (『거처』, 투이 즈엉의 소설)

나는 『차가운 여름』의 작가 반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가 겪은 전쟁은 적나라했고 참혹했다. 그는 실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쓸쓸하게 벌거벗겨진 감각을 갖게 되고 심지어 공허한 황망함에 빠지기도 한다고 했다. 평화가 처음 도래했을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이 따라 다닌다고 했다. 사실이였다.

반레는 전쟁에 대한 글쓰기는 고통을 불러 일으키거나 적개심을 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공고히 하고 삶의 정당성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반레는 말했다. 바로 그러하기에 전쟁이 뒤로 물러섰을 때 전쟁에 관한 문학의 흐름이 삶을 더 좋고 싱그럽게 하기 위해서 지하수처럼 스며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쓰러져간 사람들의 희생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이다.

3. 인간의 생존에 대한 숙명과 의미

세계와 베트남의 역사는 수 천년을 흘러왔고, 흥망성쇠는 우주의 평범한 법칙이었다. 하지만 근원적 가치는 시간의 흐름이나 흥망성쇠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 인문, 책임, 자유의 정신, 창조적 의지는 언제나 근원적 가치이며 베트남 민족의 전통이다. 관용, 공정, 모든 약자에 대한 관심, 선의, 슬픔과 기쁨, 소원, 사랑, 그리고 민족의 전통 속에, 모든 베트남인의 성격 속에 나타나는 고통과 상실까지 문학 속에 체현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전체집단을 위해 깊은 의미를 지닌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과 함께 독립적인 지혜의 빛을 밝히고, 다수에 함부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다.

언제나 상류로부터 정확히 근원적인 가치로부터 깨끗하고 맑은 흐름

을 언제나 지켜왔다. “잔혹함을 이기기 위해 대의를 갖고, 폭력을 대체하기 위해 지성을 갖는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민족의 도덕교리에서부터 계승되어 온 베트남문학의 가치이다. 그러나 시대마다 특히 전쟁 이후의 이 가치는 냉정하게 돌아보았을 때 충분한 체험을 통한 시간이고,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각이다. 영웅적인 분위기와 서사적인 낭만성은 고민과 충분한 자문과 새 시대의 예감으로 두근거리게 되었다. 인생사와 여러 겹을 헤쳐 가는 사람들은 다른 빛으로 비춰지고, 더 슬프지만 진실로 더 친밀하고 특히 더 인간적이다. 민족역사와 문학사에서 나는 특히 응웬 쩌이의 「평오대고」 이후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작품에서 예언한 것처럼 시대의 커다란 비극으로 “수 천년의 원한을 남긴 영웅”이다. 가장 개인적인 작품들에서 독자는 그의 숙명을 분명하게 그려 볼 수 있다. 바로 그 특별한 공간, 특별한 역사가 여러 많은 굴곡이 있고,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를 그려볼 수 있다. 1945년 이전 8월 혁명 이전의 문학은 남 까오(Nam Cao), 부 쯡 풍(Vũ Trọng Phụng), 응웬 쯔 호안(Nguyễn Công Hoan)으로 대표된다. 그들은 개인과, 문학으로 찬란한 시대의 특별한 인간의 숙명을 발견하고 찾았다.

1975년 이후, 특히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우리는 또한 고난의 길을 걸었다. 어지러운 만큼 변해 버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정말 고생스러웠다. 그 변화들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풍부한 변화였다. 과거에는 반은 옳고 반은 틀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옳거나 틀림, 반은 흑이고 반은 백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 흑백으로만 정의되어 있던 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고생했다.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 아주 모순적 삶에서 한 측면으로만 정리하기 어려워 고생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지럽게 널린 일들을 접하게 되고 그러하기에 자신의 덕성

을 드러낼 기회를 점점 더 갖게 된다. 실용적인 생활 방식과 왕좌에 오려는 패거리, 절대적인 세속화는 정신적인 혼란과 고독을 초래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거부하고 오만에 빠져 자연에 도전한다. 두려움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악을 저지른다. 혼란과 불안은 정신적 불구로서의 흔적을 분명하게 남긴다. 이 새로운 시기의 작가는 응웬 민 쩌우(Nguyễn Minh Châu), 레 루(Lê Lữ), 응웬 후이 티엵(Nguyễn Huy Thiệp), 팜 티 호아이(Phạm Thị Hoài), 바오 닌(Bảo Ninh), 마 반 캉(Ma Văn Kháng), 따쥬이 안(Tạ Duy Anh), 이반(Y Ban), 보 티 쉰하(Võ Thị Xuân Hà) 등이 있다.

그들은 문학에 대해, 삶에 대한 생각에 대해, 고통 속에서 추출된 아름다움에 대해, 인간의 세속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세기의 격변은 문학에 아주 강력한 충격을 주어 폭발하도록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깨어져 나와 스스로 치유하게 하고, 스스로 희생하고, 뼈와 살의 격렬한 몸부림으로 인류의 흐름에 합류하게 했다. 개인에서 시작하여 민족을 바라보고 인류를 향해 나아갔다. 그 길은 문학이 갔던 길이고 가야 할 길이다. 인식하고 다시 인식하는 것은 오늘의 뜨거운 문제를 제기하고 인류의 장구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베트남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렸을 때 외갓집으로 대피한 날,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마을에는 젊은 남자가 없고 전부 노인네와 여성, 어린이들뿐이었다. 나는 그때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웠다. 지금까지 나는 할머니, 이모, 숙모, 고모들을 기억한다. 그러나 젊은 남자들,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삼촌에 대한 기억은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18세가 되면 모두 전쟁터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신랑 하나는 별난 환경에 있었다. 우리 이모가 마을에서 가장 예뻐는데, 잘 생기고 유능한 그 남자를 사랑했다.

신병 모집 전날 밤, 마을에서 애인 사이인 사람들은 서로 강가에 가서 속 마음을 털어놓았다. 남자들은 “가슴에 붉은 사랑을 품기”를 결심하고, 여자들은 “천년 동안 기다리기”를 결심한다. 그들 속에 우리 이모와 그 남자가 있었다. 그는 외동아들이고 부모의 연세가 많았기에 길을 떠나기 며칠 전에 서둘러서 이모와 결혼식을 올렸다.

전쟁은 아주 격렬해져서, 수시로 전사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들었다.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상처 하나 없이 집에 돌아왔다. 다음 날에는 문이 퐁퐁 잠겨 있었다. 이모는 딸을 데리고 현 사무소에 갔다가 하루 지나 급히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다.

알고 보니, 그 남자가 탈영을 한 것이다. 마을 전체가 수근거릴 뿐 아무도 왕래가 없었다. 그리고 이모는 그 남자와 이혼을 했다. 그리고 딸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 남자는 문을 잠그고 혼자 침울하게, 술에 마시며 살았다. 혼자 술에 취해, 슬프게 세월을 흘려 보냈다. 어쨌든 결혼을 새로 다시 하고, 아이도 낳았다. 몇 년 전 내가 고향에 갔을 때 그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여전히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 인간의 가없는 숙명이 그러했던 것이다.

그 당시 남편의 사촌누이는 남부에서 남베트남 군인을 남편으로 두고 있었다. 남부가 해방되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 삼촌, 고모 모두 승자의 자세를 하고 있었다. 화해는 곧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다. 그리고 사촌 매형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가여운 사촌 누나는 여전히 젊고 예뻐다. 사람들은 모두 재혼을 권하고 중매를 서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완고하게 자신의 두 아들을 열심히 키울 뿐이다. 그녀가 죽던 날 친척들은 그녀의 베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베갯잇은 수십 년전에 남편이 입고 있던 옷이었기 때

문이다!

그러한 시대의 홍수 속에서 인간의 운명은 지극히 작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아주 많다. 모든 작가들은 실제의 인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그 숙명을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한다. 거기에서 역사가 매일의 간절한 기억과 함께, 혼란스런 현대와 우리를 갈라놓는 아주 작은 경계들과 함께 결실을 맺는다. 고통으로 가득 찬 기나긴 전쟁을 거치면서 베트남 문학은 인간의 숙명을 깊이 파고들고, 근심이나 분노도 잃어버리고, 생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믿음으로, 안타까움과, 장애, 인애로 나아가고자 각별한 나를 찾아나간다. 마치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랬던 것처럼.

4. 마무리

나는 팜 빈 꾸(Phạm Vĩnh Cu) 교수의 의견에 깊이 동의한다. 그는 “개인, 민족과 인류는 인간의 우주 속에서 완전한 질서 속에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3단계다. 인간의 우주는 몸 속에 있고, 자신을 둘러싼 자연 우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넓다.” 때로는 모든 인간의 숙명이 우주의 약간의 빛과 어둠을 갖고 있으면서 언제나 빛을 향해 갈망한다고 나는 계속 생각한다. 모든 민족이 자신을 표현하고 인류로 하나 되기 위해 다른 집단 인격과 상호작용하려고 집단적 인격과 고귀한 본능을 축적한다. 서로 풍부해지기 위해 인류의 능동적인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 전통과 민족의식에서, 인류에 대한 의식까지 고려한다. 모든 민족의 문화적, 전통적 정화는 전인류의 가치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인류문화의 실질적 가치는 민족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민족은 자기 민족의 본색

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그 가치로만이 존재할 수 있다.”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난드 브란델은 이런 만대의 규율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민족전통과 민족성 속에서 생동적이고 창조적인 본질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로부터 문학의 중차대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대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특별한 의미있는 세미나를 열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 발표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ABSTRACT]

Literature and Voice from Our People

Tui Jueong

This research aims to describe the traditions of Vietnamese literature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In ancient times, Vietnam had been invaded by many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the Mongols for over a 1,000 years, and even in more modern times, Vietnam had suffered great hardship from wars with France and the U.S. It seemed fate that Vietnam face those hardships and sufferings so frequently. However, rather than demoralize the country, it has produced a unique national spirit and tradition in Vietnam based on their energizing and creative instincts.

Such traditions including inspiration for wars and national independence appeared well in the text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ritten by Nguyen Trai in the 15th century and poems composed by Tran Nhan Tong King, who even defeated the Mongols twice. In addition, national tradition and its underlying value, humanities, responsibility and the spirit of freedom are well-preserved in the literatures appearing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Vietnam which was achieved on the 30th of April 1975. National and traditional purification attained through long war influenced panhuman value, and such kinds of cultural value held by mankind are not separated from Vietnamese ethnics. This research describes such tra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literatures.

Keywords : Vietnam, Ethnic, War, Literature, Mankind, patriotism

Văn học và sự lắng nghe từ dân tộc mình

Tui Jueong

1. Đề dẫn

Khi nhận đề tài “Truyền thống dân tộc và đặc trưng văn học Việt Nam” tôi cảm thấy ngạc nhiên! Bởi đây thực sự là một đề tài quá lớn, ngay cả với một nhà nghiên cứu chứ chưa nói đến với một nhà văn, trong một thời gian ngắn ngủi và thể hiện trên một lượng chữ của 5 trang giấy!

Nhưng mặt khác - đề tài này đã chạm đến một góc nào đó trong tâm thức của một nhà văn bởi dường như máu thịt, tinh hoa của dân tộc đã sinh ra, nuôi dưỡng dòng chảy văn chương và ở chính đó, dân tộc, đất nước, những điều thiện và cái đẹp được tôn vinh.

Mỗi dân tộc, theo tôi có một bản sắc riêng, một số phận và một sứ mệnh riêng cũng như mỗi con người được sinh ra trên đời này để thể hiện cái riêng biệt của mình...

Có dân tộc dường như là nơi khởi xướng các đức tin tôn giáo, có dân tộc ý thức về sự thánh thiện của mình... Và trong “bản nhạc phức điệu vô tận với các bạn bè dân tộc xuất hiện trước sau, đối âm và hòa âm với nhau trong một chỉnh thể sống động” (Herder) thì dân tộc Việt Nam có một số phận thật không bình thường. Nhỏ bé nhưng quật cường. Thèm khát

hòa bình nhưng chiến tranh liên miên. Nhỏ bé và nghèo nàn nhưng luôn phải đương đầu với những kẻ thù giàu có và to lớn sừng sỏ trên thế giới...

Một nghìn năm bền bỉ đấu tranh chống quân xâm lược phương Bắc, mấy chục năm chiến tranh giữ nước chống lại hai đế quốc Pháp và Mỹ...Chúng tôi đâu có chọn cho mình một con đường khổ ải như thế - nếu không nói là số phận?! Nhưng chính trên con đường ấy tinh thần và truyền thống dân tộc với bản chất sống động và sáng tạo của nó đã được hun đúc được bồi đắp, làm nên những giá trị cốt lõi và trường tồn. Và tôi cho rằng - văn học Việt Nam với sự nhạy cảm của nó luôn biết cách “lắng nghe” dân tộc mình để có được những hình dung rõ nét và sâu sắc nhất về dân tộc bằng chính những tác phẩm của mình.

2. Tình yêu và lòng căm thù

Tôi thường xúc động mỗi khi đọc bài thơ của thi sĩ - nhà vua Trần Nhân Tông sau chiến thắng lần hai đánh quân Nguyên Mông:

Xã tắc bao phen chồn ngựa đá

Non sông nghìn thuở vững âu vàng

Trần Nhân Tông là vị vua thân chinh cầm quân đuổi giặc. Thế giặc lúc ấy như nước vỡ bờ, vó ngựa của chúng quần nát cả Châu Âu. Vậy mà cả ba lần chúng đều phải dừng bước trước quân sĩ nhà Trần. Sau chiến thắng, cùng quần thần hành lễ bái yết tại lăng vua cha, nhìn con ngựa đá lấm bùn, nhà vua cảm khái làm bài thơ trên và nó đã được lưu danh muôn đời. Chỉ có hai câu thơ thôi nhưng làm nổi bật sức mạnh to lớn của dân tộc, niềm kiêu hãnh chiến thắng và cao hơn là khao khát, đồng thời khẳng định sự toàn vẹn bờ cõi và sự trường tồn của dân tộc Việt Nam. Một trong những truyền thống dân tộc Việt Nam - đó là sự yêu nước thương nòi - yêu như một thuộc tính tự nhiên, như khi sinh ra đã có, yêu từ bờ tre mái rạ, đến từng vết chân trâu trên đường làng, đến mỗi ngọn núi con sông, yêu đến mức sẵn sàng chết vì những điều đơn sơ như thế. Chính bởi tình cảm lớn lao ấy mà mỗi khi đất nước có họa ngoại xâm, trong lồng ngực mỗi người dân nước Việt đều bùng cháy tình yêu và lòng căm thù. Sự kỳ vĩ của ngọn lửa yêu thương và căm thù ấy đã sáng tạo và làm nên những kỳ tích, chiến công vang dội cả năm châu! Một cách đầy bản năng, dân tộc chúng tôi đã tự ý thức được số phận của mình, tự ý thức về tinh thần và truyền thống dân tộc mình một cách đầy tinh táo để huy động tất cả sức mạnh dân tộc trong những cuộc chiến tranh cam go và gian khổ liên miên trong suốt chiều dài lịch sử. Văn học - trong những giờ khắc lịch sử ấy sẽ là gì nếu không phải là “phẩm chất tinh thần của

thời đại của dân tộc!” Nếu các bạn đã từng biết về tác phẩm “Đại Cáo bình Ngô” của chúng tôi ở thế kỷ thứ XV của danh nhân văn hóa Nguyễn Trãi một bản tuyên ngôn độc lập - thì thấy một minh chứng thật sống động về sự tự ý thức về phẩm giá dân tộc rất cao:

Việc nhân nghĩa cốt ở yên dân
 Quân điếu phạt trước lo trừ bạo
 Như nước Đại Việt ta từ trước
 Vốn xưng nền văn hiến đã lâu
 Núi sông bờ cõi đã chia
 Phong tục Bắc - Nam cũng khác...

Không có gì là lạ nếu trong dòng chảy văn học của chúng tôi - đề tài về chiến tranh, cảm hứng về độc lập tự do dân tộc... lại quan trọng và dày dặn đến thế. Cũng không có gì lạ khi tôi - một cô bé mới hơn 10 tuổi đầu những năm tháng chiến tranh ấy đã say sưa với “Mở rừng” của Lê Lợi, “Những ngôi sao xa xôi” của Lê Minh Khuê, “Dấu chân người lính” của Nguyễn Minh Châu và những câu thơ hào hùng của Phạm Tiến Duật “Đường ra trận mùa này đẹp lắm, Trường Sơn Đông nhớ Trường Sơn Tây” .

Sau này, bước chân vào nghiệp viết văn, gặp những nhà văn yêu quý ấy, tôi đã kể lại rằng nếu không có ngày 30/4 năm 1975, biết đâu tôi cũng lên đường vào Trường Sơn theo tiếng

gọi thiêng liêng của Tổ Quốc bởi ngọn lửa mà họ đã truyền cho tôi. Phải chăng sứ mệnh của nhà văn đó là sự giữ lửa và truyền cho những thế hệ kế tiếp truyền thống của dân tộc mình!

Có một điều chắc chắn là dù còn ít tuổi khi sống trong không khí chiến tranh ở hậu phương thì trong tôi nổi ám ảnh chiến tranh vẫn cứ trở đi trở lại trong nhiều truyện ngắn và trong cả mấy cuốn tiểu thuyết của mình. Bởi nó đã thành ký ức không bao giờ quên “khi đêm đêm trong ngôi làng không còn đàn ông trai tráng, những người đàn bà mộng du đi là lướt như những bóng ma trắng thấp thoáng khắp cánh đồng và ngay cả đứa trẻ ngã trâu bị chết nhập đồng trở về kể về giấc mơ làm lính” ... (Ngụ Cư - tiểu thuyết của Thùy Dương)...

Tôi có dịp trò chuyện với nhà văn Văn Lê - tác giả cuốn tiểu thuyết “Mùa hè giá lạnh” mà chiến tranh hiện lên với tất cả sự trần trụi và khốc liệt của nó. Ông ấy cũng khiến tôi hiểu rằng với những người thực sự tham gia vào trận chiến - cảm giác về sự mất mát đến trống trải bơ vơ, thậm chí là hoang mang trống rỗng... trong những ngày đầu hòa bình và đeo đuổi cuộc đời họ mãi sau này - là có thật! Văn Lê cho rằng viết về chiến tranh không phải là khơi gợi niềm đau hay cố sùỵ hận thù mà là để củng cố về đạo đức, lẽ phải cuộc sống “Chúng ta không thay đổi được lịch sử - nhưng tương lai thì có thể!...” Văn Lê nói. Và chính vì điều đó, khi chiến tranh đã lùi xa tôi cho rằng, sẽ vẫn có âm thầm một dòng văn học viết về chiến tranh như mạch nước ngầm được chắt lọc để tưới

tấm cho cuộc sống tốt tươi hơn, để những người sống phải sống xứng đáng với những người đã ngã xuống.

3. Thân phận và ý nghĩa về sự tồn sinh của con người

Lịch sử thế giới và Việt Nam đã trôi qua hàng ngàn năm, sự hưng vong là lẽ thường của vũ trụ nhưng những giá trị gốc thì vẫn bất biến dù thời gian, dù thăng trầm thử thách. Nhân văn, trách nhiệm, tinh thần tự do, ý chí sáng tạo... luôn là những giá trị gốc là truyền thống của dân tộc Việt Nam. Sự khoan dung, công chính, quan tâm đến mỗi kẻ yếu, hướng thiện và cả những buồn vui, mong ước, yêu thương và đến cả những mất mát đau thương trong tính cách mỗi con người Việt Nam, trong truyền thống dân tộc thể hiện trong văn học đều mang những ý nghĩa sâu sắc, vì người khác, vì cả cộng đồng... Nhà văn cùng tác phẩm của họ đã tỏa ra ánh sáng trí tuệ độc lập, không hòa lẫn vào đám đông, luôn luôn bảo vệ sự trong sạch của dòng chảy từ thượng nguồn, từ những giá trị gốc đích thực. “Đem đại nghĩa để thắng hung tàn, lấy chí nhân để thay cường bạo.” và tình yêu thương đồng loại “thương người như thể thương thân”... là những giá trị mà văn chương Việt Nam được thừa hưởng từ đạo lý của dân tộc. Nhưng ở mỗi thời đại, nhất là sau chiến tranh những giá trị này được bình tĩnh nhìn nhận lại với một cách nhìn mới đầy trải nghiệm, cởi mở và tự

do hơn. Không khí hào hùng, lãng mạn đầy chất sử thi được thay bằng những trần trố, đầy tự vấn và phập phồng những dự cảm của thời đại mới. Cõi nhân sinh và mỗi kiếp người được soi rọi bằng một thứ ánh sáng khác, buồn bã hơn nhưng chân thực gần gũi hơn và đặc biệt Ngươi hơn. Trong lịch sử dân tộc và lịch sử văn học tôi đặc biệt ám ảnh về những tác phẩm của Nguyễn Trãi sau “Đại cáo bình Ngô”. Ông là một bi kịch lớn của thời đại - một “anh hùng để hận mấy ngàn năm” như chính tác phẩm của ông dự báo. Trong chính những tác phẩm tưởng như cá nhân nhất ấy, người đọc đã hình dung rõ rệt nhất một thân phận người - trong chính một không gian đặc biệt, một lịch sử đặc biệt còn nhiều góc khuất, từ đó có thể hình dung về một xã hội một thời đại đã xa. Văn học, thời kỳ trước Cách mạng tháng tám 1945 với những tên tuổi lẫy lừng như Nam Cao, Vũ Trọng Phụng, Nguyễn Công Hoan... là những bằng chứng về sự khai phá và đi tìm những cái tôi, những thân phận người đặc biệt của một thời huy hoàng của văn chương.

Sau năm 1975 và đặc biệt là sau sự sụp đổ của hệ thống XHCN, với chúng tôi cũng là cả một chặng đường vật vã. Vật vã để sống trong một hoàn cảnh mới, một thế giới mới với những thay đổi chóng mặt, những biến chuyển mà ngay cả sự tưởng tượng cũng chưa chắc đã phong phú bằng. Vật vã để tìm ra câu trả lời cho những gì trước đây vẫn định danh một cách rõ ràng như chỉ có đúng hoặc sai, đen hoặc trắng chứ không thể vừa đúng vừa sai, vừa đen vừa trắng. Vật vã về một

cuộc sống phức tạp đầy nghịch lý phơi bày tất cả góc cạnh mà không dễ gì một sớm một chiều có thể sắp xếp lại. Con người với những ham muốn của nó bắt gặp một đời sống bộn bề ngổn ngang như vậy càng có cơ hội thể hiện dục tính của mình. Lối sống thực dụng và bày đàn lên ngôi. Sự thế tục hóa triệt để đã dẫn đến sự lạc lõng và bơ vơ trong tinh thần. Con người chối bỏ Thượng đế, ngạo mạn và thách thức cả thiên nhiên, không biết sợ và cho phép mình làm những điều ác một cách thần nhiên. Sự rối loạn và bất an là những chỉ dấu rõ nhất về những tật bệnh tinh thần... Và những nhà văn trong giai đoạn đổi mới này - Nguyễn Minh Châu, Lê Lựu, Nguyễn Huy Thiệp, Phạm Thị Hoài, Bảo Ninh, Ma Văn Kháng, Tạ Duy Anh, Y Ban, Võ Thị Xuân Hà... đã mang đến sự nhận thức lại của văn chương, của những suy tư từ đời sống, của cái đẹp chất lọc từ nỗi khổ đau và dung tục của kiếp người. Thế kỷ XX đầy biến động như một cú va đập rất mạnh vào văn chương khiến nó bùng tỉnh, và ở đó mọi thứ như vỡ ra rồi tự hàn gắn, tự hồi sinh, thay xương đổi thịt quyết liệt để hòa vào dòng chảy của nhân loại. Bắt đầu từ chính cá nhân để nhìn ra dân tộc và vươn lên tầm nhân loại - con đường mà văn học phải đi và đã đi. Nhận thức và nhận thức lại - theo tôi đó luôn luôn là đặc trưng của văn chương Việt Nam để vừa có thể đề cập đến những vấn đề nóng bỏng hôm nay vừa đề cập đến những vấn đề trường cửu của nhân loại.

Ngày sơ tán về quê ngoại dù còn nhỏ, tôi đã nhận biết một

điều: Trong làng gần như không có thanh niên trai tráng mà toàn là ông bà già, phụ nữ và trẻ con. Tôi những năm tháng ấy rất gắn bó và đến bây giờ vẫn nhớ những bà, những dì, những mợ, những cô... nhưng không hề có ký ức gì với các ông trẻ, các bác, các chú, bởi một lễ đơn giản tất cả bọn họ lên đường bằng hết khi qua tuổi 18! Chỉ một người chú rể duy nhất khiến tôi nhớ, rất nhớ thì lại ở vào hoàn cảnh trớ trêu. Dì tôi xinh đẹp nhất làng, yêu chú ấy cũng đẹp trai và giỏi giang có tiếng. Đêm trước khi có đợt tuyển quân về xã, mấy đôi yêu nhau trong làng rủ nhau ra bờ sông tâm sự, trai thì quyết tâm “về đờ ngục”, gái một lòng “ngàn năm vẫn chờ...” Trong đó có đôi dì chú tôi. Là con một, nhà lại thuộc loại khá giả trong làng nên chú nhanh chóng làm đám cưới với dì ngay trước khi lên đường có mấy ngày...

Chiến tranh vào hồi ác liệt, lác đác có giấy báo tử chuyển về, cả làng chìm vào tang tóc đau buồn thì một ngày chú trở về, không một vết thương. Cánh cổng nhà sau hôm ấy đóng im im. Dì đưa con gái trên cơ quan huyện về một ngày rồi lại vội vã đạp xe đưa con đi ngay.

Hóa ra chú ấy “B quay” đào ngũ. Cả làng thì thảo và chả ai lai vãng... Rồi dì tôi ly hôn với chú, không cả đưa con về nữa... Chú ấy sống khép kín, âm thầm, uống rượu một mình, say một mình và cuộc đời trôi qua một cách buồn rầu, dù sau cũng lấy vợ mới, có con. Mấy năm trước tôi về làng, biết tin chú ấy mất, biết rằng chú ấy vẫn không làm hòa được với quá khứ...

Điều ấy khiến tôi cứ đau đầu mãi về thân phận một con người. Trong khi đó ở đầu kia đất nước, người chị con bác chồng tôi có chồng là lính Cộng hòa. Giải phóng Miền Nam, bố, chú, cô của chị trở về trong tư thế của những người chiến thắng. Sự hòa giải bắt đầu trong chính gia đình. Có nhiều nỗi đau cùng nhiều nước mắt. Rồi anh ấy đột ngột bệnh nặng qua đời. Thương chị trẻ lại đẹp, ai cũng khuyên tái giá và mối manh với nhiều người. Chị vẫn khăng khăng ở vậy nuôi hai con trai. Ngày chị mất, người thân sững sờ khi phát hiện trong chiếc gối chị vẫn gối đầu mấy chục năm qua là bộ quần áo cũ của chồng!

Số phận những con người bé nhỏ trong lũ cuốn, của thời đại bi hùng như thế trên đất nước tôi có rất nhiều. Mỗi nhà văn đều mong muốn đi đến được tận cùng với mỗi thân phận khi con người thực sự là chính mình. Ở đó lịch sử vẫn đang đầy, với ký ức khắc khoải mỗi ngày, với hiện tại đầy ngổn ngang và những ranh giới có khi vô cùng mỏng manh đã chia cắt chúng ta. Đi qua những cuộc chiến tranh dài dặc, đầy đau thương, văn học Việt Nam đã thông qua việc đào sâu vào thân phận con người, đi tìm những cái tôi khác biệt bằng chính những nỗi mất mát lo âu hay giận giữ, bằng cả niềm tin vào con người để lý giải sự tồn sinh đầy ý nghĩa của nó, để vươn tới sự thương xót, chở che và nhân ái - như trái đất này khi được sinh ra cần phải thế.

4. kết thúc

Tôi tâm đắc với ý kiến của giáo sư Phạm Vĩnh Cư khi ông cho rằng: “Từ cá nhân, dân tộc và nhân loại là ba cấp độ liên hoàn trong một trật tự hoàn chỉnh, trong một vũ trụ con người. Vũ trụ con người nằm bên trong và bắt rễ muôn phương vào vũ trụ tự nhiên bao trùm nó và mệnh mông hơn nhiều...” Đôi khi tôi cứ nghĩ mỗi thân phận người đều mang trong nó chút ánh sáng và cả sự tăm tối của vũ trụ và luôn luôn khao khát vươn lên về phía ánh sáng kia. Mỗi dân tộc chất chiu từ những “nhân cách tập thể, những bản ngã cấp cao” để thể hiện mình và tương tác với những nhân cách tập thể khác để hợp thành nhân loại. Từ truyền thống và ý thức dân tộc, tiến đến ý thức nhân loại để có thể bổ xung làm giàu cho nhau, tạo nên sự đa dạng đầy năng động của loài người. Tinh hoa văn hóa, truyền thống của mỗi dân tộc đều có giá trị toàn nhân loại và ngược lại. Không một giá trị đích thực nào của văn hóa nhân loại lại xa lạ với mỗi dân tộc! “Một dân tộc chỉ có thể tồn tại bằng cái giá không ngừng nghỉ tìm kiếm bản sắc dân tộc mình”.- Sử gia Pháp Fernand Braudel đã nói về quy luật của muôn đời như thế và tôi cho rằng sự khám phá và thể hiện bản chất sống động và sáng tạo trong tính dân tộc, truyền thống dân tộc đã đặt trọng trách nên vai văn học từ xa xưa. Xin cảm ơn Hội nhà văn Hàn Quốc đã tổ chức một cuộc hội thảo đặc biệt có ý nghĩa để chúng ta một lần nữa được

bàn và chia sẻ những vấn đề mang tầm như một mệnh lệnh của thời đại.

접수일 : 2019. 03. 27 총평일 : 2019. 04. 20 게재확정일 : 2019. 04. 25. 무심사 게재